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 영 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의 한국판을 경찰공무원 516명(남 460, 여 56), 대학생 421명(남 191, 여 230), 청소년 437명(남 223, 여 214)에게 실시하여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 조명환, 차경호, 1998)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구조가 본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SWLS 척도와 여러 타당도 지표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척도의 수렴 타당도 또한 확인되었다. 아울러, K-SWLS의 내적 일치도 또한 만족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 K-SWLS

[†] 교신저자: 임영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Fax: 053-850-6369, E-mail: ylim@daegu.ac.kr

과학적 연구 주제로 행복(幸福, happiness)은 어울리지 않고 부적합하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마다 나름의 서로 다른 행복론(幸福論)을 지니고 있고, 연구자마다 행복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부여하며, 사회마다 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행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과 윤리학, 그리고 종교 문헌에서 행복을 다루기 시작한지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심리학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과학적 연구의 영역에서 행복을 배제한 것도 이와 같은 행복의 '주관적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특성을 극복한 이후에야 행복을 과학의 테두리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는 것이 심리학의 엄정한 계율이었다.

심리학을 제외한 사회과학(예,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는 행복의 주관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 불렀다(Layard, 2006). 정치적 자유의 수준, 언론 자유의 정도, 수도와 전기 보급률, 보편적 교육의 수준, 교통과 통신 수준, 인터넷 보급률 등의 객관적인 정보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었다. 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환경 요소들의 총합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행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질 연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러나 삶의 질의 개념에는 자기 지각으로서의 행복 개념이 누락되어있다. 즉, 정치적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경제적 풍요가 지속되며 체계적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으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건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를 행복하다고 간주해야 할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삶의 질 개념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특수성과 주관성에서 탈피하여 보편성과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Diener, 1984)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주관적 안녕은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유래한 쾌락주의적 전통(hedonism)을 따르고 있는 개념이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상이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있는 개인들이 그나마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삶(good life)의 요건은 가능한 한 적은 고통과 가능한 한 많은 쾌(快)뿐이라는 것이 쾌락주의를 주창하는 주관적 안녕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즉, 모든 인간은 쾌를 제공하는 대상을 바라고 고통을 끼치는 대상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은 단일 구성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세 구성개념의 통합체로서 개념화되었다(Diener, 1984).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높은 상태, 즐거움·편안함·흥미·안락감 등의 긍정정서(positive affect)를 보다 강하게 그리고 빈번히 느끼는 상태, 슬픔·불안·분노·수치감 등의 부정정서(negative affect)를 보다 약하게 그리고 보다 드물게 경험하는 상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주관적 안녕이다. 즉, 삶의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평가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긍정·부정정서는 주관적 안녕을 구성하는 정서적·경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 2012).

주관적 안녕을 구성하는 세 측면 사이의 관

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긍정·부정정서와 중간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데 비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단일 척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긍정정서나 부정정서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Pavot & Diener, 2004).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척도는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이다. SWLS는 범문화적으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문화권과 언어권에서 범용되고 있고(표 1),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표 2). SWLS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여타 척도에 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SWLS는 삶의 만족도

를 측정하는 단일 문항 척도들에 비해 신뢰도(예,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다. 둘째, 다양한 삶의 영역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에 비해 SWLS는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편향(bias)이 적어 인구학적 특성이 다른 집단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할 때 적합하다(Huebner, 1994). 예를 들어, 저연령의 사람과 고연령의 사람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저연령의 사람은 고연령의 사람에 비해 ‘재정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LS의 신뢰도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SWLS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내부적으로 일관적인 척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보고된 타당화 연구에서 SWLS의 내적 합치도 지수는 최하 .77(Gouveia et al. 2009)에서 최고 .86(Anaby et al. 201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달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지수

표 1. 각 문화권에서 진행된 SWLS 척도의 타당화 연구

국가	연도	연구자
프랑스	1989	Blais, Vallerand, Pelletier와 Briere
포르투갈	1993	Neto
네덜란드	1999	Arrindell, Heesink와 Feij
체코	1999	Lewis, Shevlin, Smekal와 Dorahy
스페인	2000	Atienza, Pons, Balaguer와 García-Merita
타이완	2006	Wu와 Yao
러시아	2006	Tucker, Ozer, Lyubomirsky와 Boehm
스웨덴	2008	Hultell와 Gustavsson
말레이시아	2008	Swami와 Chamorro-Premuzic
브라질	2009	Gouveia, Milfont, Fonseca와 Coelho
터키	2010	Durak, Senol-Durak와 Gencoz
노르웨이	2011	Clench-Aas, Nes, Dalgard와 Aarø

표 2.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SWLS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상	연도	연구자
아동	2000	Atienza 등
	2003	Atienza 등
청소년	1993	Neto
	2000	Pons, Atienza, Balaguer와 García-Merita
	2001	Gilman와 Huebner
대학생	1985	Diener 등
	1995	Shevlin와 Bunting
일반 성인	1991	Arrindell, Meeuwesen와 Huyse
	1990	Blais, Vallerand, Pelletier와 Briere
비(非)정신과 외래환자	1991	Arrindell 등
노인	2000	Pons 등
임산부	2004	Martinez 등
이민자(移民者)	2001	Neto

는 .80(Diener et al., 19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WLS는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여타 척도들, 자기 존중감·외향성·긍정정서 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정서와 신경성을 측정하는 도구들과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양호한 수렴 타당도를 과시하였다(Pavot & Diener, 2008). 반면,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성개념(예,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도구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Diener 등, 1985).

SWLS의 여타 신뢰도 지수와 타당도 지수가 일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SWLS의 요인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뭇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한 과거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SWLS에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로서 단일 요인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반면, 확인적 요인분석을 도입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전히 5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하는 단일 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나(Durak, Senol-Durak, & Gencoz, 2010), 다른 연구에서는 4번 문항과 5번 문항이 독립적인 요인을 구성하여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고 1-3번 문항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Hultell & Gustavsson, 2008). SWL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이처럼 비일관적인 이유는 연구에 참여한 집단의 ‘연령’ 특성에 기인한다고 Hultell과 Gustavsson (2008)는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문항 4(‘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반응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연령이 보다 많은 응답자는 연령이 보다 적은 응답자

보다 ‘중요한 것’을 이루어 내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문항 4에서 높은 값을 나타낼 것이다.

SWLS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2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구조인지를 밝히는 것은 SWLS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SWLS가 여타 삶의 만족도 척도에 비해 우수한 점은 요인구조가 단일구조이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등)의 편향에서 자유로우며, 인종과 문화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에게 사용되어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SWLS의 요인구조가 오랜 기간 알려진 1요인 구조가 아니라 2요인 구조가 적당하고 두 번째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면 연령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두 집단을 비교할 때 SWLS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SWLS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urak et al., 2010; Skok, Harvey, & Reddihough,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대표적인 세 집단(청소년 집단, 대학생 집단, 경찰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K-SWLS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집단은 입시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집단이고, 대학생 집단은 취업과 미래설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경찰공무원 집단은 업무 환경의 위험도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SWLS가 국외에서 개발되고 1994년 이래로 이 도구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많은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K-SWLS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다룬 연구

가 부재하다(임남언, 이화령, 서은국, 2010).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SWLS의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첫째, K-SWLS 척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K-SWLS 척도의 대안적 요인구조 중에서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를 찾고자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K-SWLS 척도를 실시할 때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녀야 할 수렴 타당도 등의 요건에 만족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셋째, K-SWLS 척도를 대학생, 청소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믿을만한 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서 내적 일치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K-SWLS 척도의 총점과 각 요인점수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경찰공무원과 대학생·청소년 사이의 연령차는 크고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의 연령차는 적기 때문에 K-SWLS가 연령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등 3개의 집단이 참여하였다.

경찰공무원 집단의 경우, 경기 지역의 경찰서와 지구대 11곳에서 각 단위별로 50명씩 표집인원으로 선정하여 임의표본추출법(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에서 이중표기나 결측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516명(남자 460명, 여자 5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2011년 경찰백서(경찰청, 2011)에 의하면, 전국의 경찰공무원은 총 101,108명이며 그 중에서 여성은 6,830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7.48($SD = 8.55$)세였고, 연령 범위는 22세부터 61세까지였다. 참가자를 계급별로 분류하면 계급관에 미기입한 2명을 제외하고 순경은 179명, 경장은 96명, 경사는 135명, 경위는 89명, 경감은 13명, 경정은 3명이었다.¹⁾

대학생 집단의 경우, 경북 지역에 위치한 4개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421명(남자 191명, 여자 230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81($SD = 2.29$)세였고, 연령 범위는 17세부터 29세까지였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 경북 지역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437명(남자 223명, 여자 214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16.08($SD = .34$)세였고, 연령 범위는 15세부터 18세까지였다.

1)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등 모두 11계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래 3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찰공무원과 대학생에게는 3개의 척도 모두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집단에게는 3개의 척도 중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와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를 시행하였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

삶의 만족도 척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애용되는 도구로서 Diener 등(1985)이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는 7점 척도(1점: 매우 아니다, 7점: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한다. 가능한 삶의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

정서적·사회적·심리적 웰빙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제시한 Keyes(2002, 2003)의 이론에 따라 정신적 웰빙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다(Keyes et al., 2008; Lim, Ko, Shin, & Cho, in press). 이 척도는 6점 척도(0점: 전혀 없음, 5점: 매일)이고, 정서적 웰빙(1-3문항), 사회적 웰빙(4-8문항), 심리적 웰빙(9-14문항) 등의 3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한 정신적 웰빙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70점까지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K-MHC-SF 척도는 임영진 등(2012)이 번안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정서적 웰빙: .92, 사회적 웰빙: .79, 심리적 웰빙: .88)이었다.

한국판 긍정 및 부정정서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K-PANAS)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20문항의 척도를 Lim, Kim, Yu와 Kim(2010)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2요인(각 10문항)으로 구성되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가능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부정정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Lim et al., 2010)에 의하면, 긍정정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이었고 부정정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에 달하였다. 아울러 1주 간격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긍정정서의 경우에는 .79이었고 부정정서의 경우에는 .89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긍정정서)과 .88(부정정서)이었다.

대안적인 요인모형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결과와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2가지 요인모형들을 구체화시켜보았다. 각 모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일 요인모형: K-SWLS 척도의 5개 문항들

이 단일한 요인에 수렴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고, 삶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 시점(時點)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 대해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2요인 모형: K-SWLS 척도가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 요인과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2요인 모형에서는 가정한다. 즉,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때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고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2요인 모형이 가정하는 바이다. 본 모형에 대한 검증은 Hultell과 Gustavsson(2008)의 연구에서 시행한 바 있다.

자료 분석

K-SWLS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2.02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2002)을 사용하여 각 대안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크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도를 밝혀주는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Tucker & Lewis, 1973) (Bentler, 199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eiger, 1990)을 이용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RMSEA 값은 .08 이하 일 때, CFI와 TLI 수치는 .90 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Byrne, 1998).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자료가 정규성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Kolmogorov-Smirnov 검사를 시행하였다 (Marsaglia, Tsang, & Wang, 2003). 그 결과 일부 문항(예, 문항 3: $Z = 3.79, p < .001$)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robust maximum likelihood (ML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uthén & Muthén, 2007).

K-SWLS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측정하였으며,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K-PANAS 척도 및 K-MHC-SF 척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Kolmogorov-Smirnov 검사에 의하면, 일부 척도(예, K-PANAS의 긍정정서 척도: $Z = 2.32, p < .001$)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수렴 타당도 검증 시 스피어먼(Spearman) 상관분

석 방법을 사용하였다(Bonnet & Wright, 2000).

결 과

구성 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K-SWLS 척도에 대한 2가지 대안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가 표 3-5에 소개되어 있다. 적합도 분석 결과, 세 집단에서 두 요인모형 모두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였다. 이어 카이제곱 차이 검증(Satorra & Bentler, 1999)을 통해 모형간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경찰공무원 집단에서는

표 3. K-SWLS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모형)

문항	경찰 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요인 1	요인 1	요인 1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79	.72	.73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85	.63	.69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87	.85	.81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85	.70	.81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76	.70	.71

표 4. K-SWLS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모형)

문항	경찰공무원 ($n = 516$)		대학생 ($n = 421$)		청소년 ($n = 437$)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1.	.80		.72		.73	
2.	.86		.63		.70	
3.	.87		.86		.81	
4.		.89		.72		.83
5.		.79		.72		.72

표 5. K-SWLS 척도에 대한 2가지 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

집단	모형	χ^2	df	CFI	TLI	RMSEA
경찰공무원 (n = 516)	단일요인	21.53	5	.98	.97	.08
	2요인	7.95	4	.99	.99	.04
대학생 (n = 421)	단일요인	5.70	5	.99	.99	.01
	2요인	3.26	4	1.00	1.00	.00
청소년 (n = 437)	단일요인	9.79	5	.99	.98	.04
	2요인	7.54	4	.99	.98	.0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여, $\Delta\chi^2 = 13.26$, $\Delta df = 1$, $p < .001$, 2요인 모형이 단일요인 모형에 비해 경찰공무원 참가자에게 보다 적합한 요인구조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학생 집단과 청소년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못하여, $\Delta\chi^2 = 2.44$, $\Delta df = 1$, $p = n.s.$, $\Delta\chi^2 = 2.25$, $\Delta df = 1$, $p = n.s.$, 단일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 중 보다 나은 모형을 선택할 수 없었다. 상기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도구 개발자가 가정 한 단일요인 모형 보다는 2요인 모형이 세 집단에 두루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렴 타당도 검증

K-SWLS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K-MHC-SF 척도 및 K-PANAS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6). 선행 연구에 의하면 SWLS 척도는 MHC-SF 척도의 정서적·사회적·심리적 웰빙 척도와 PANAS 척도의 긍정정서 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임남연 등, 2010; Diener et al., 1985; Keyes et al., 2008; Lucas, Diener, & Suh, 1996; Schimmack, Radhakrishnam, Oishi, Dzikoto, & Ahadi, 2002; Suh, Diener, & Fujita, 1996), PANAS 척도의 부

정정서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임남연 등, 2010; Schimmack, Oishi, Furr, & Funder, 2004; Van Hemert, van de Vijver, & Poortinga, 2002; Wilkinson & Walford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K-MHC-SF 척도의 정서적·사회적·심리적 웰빙 척도($\rho = .51 \sim .63$)와 K-SWLS 척도의 총점은 큰 수준²⁾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K-PANAS의 긍정정서 척도($\rho = .55, .56$)는 K-SWLS 척도의 총점과 큰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K-PANAS 척도의 부정정서 척도($\rho = -.30, -.33$)는 K-SWLS 척도의 총점과 중간 수준의 부적 상관계수를 보여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여겨진다. K-SWLS 척도의 요인 I의 경우, K-MHC-SF 척도의 정서적·사회적·심리적 웰빙 척도($\rho = .50 \sim .61$), K-PANAS의 긍정정서 척도($\rho = .55, .57$)와 큰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K-PANAS 척도의 부정정서 척도($\rho = -.33, -.33$)와는 중간 수

2)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크기가 .10 이상 .23 이하일 때 작은 수준의 상관계수, .24 이상 .36 이하일 때 중간 수준의 상관계수, .37 이상일 때 큰 수준의 상관계수라고 판단한다(Cohen, 1988).

표 6. K-SWLS 척도, K-MHC-SF 척도 및 K-PANAS 척도의 상관분석

척도	집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K-SWL 총점	경찰공무원	-						
	대학생	-						
	청소년	-						
② K-SWLS 요인 I	경찰공무원	.95	-					
	대학생	.93	-					
	청소년	.94	-					
③ K-SWLS 요인 II	경찰공무원	.92	.77	-				
	대학생	.89	.68	-				
	청소년	.91	.73	-				
④ K-MHC-SF 정서적 웰빙	경찰공무원	.63	.61	.57	-			
	대학생	.52	.53	.40	-			
	청소년	.51	.52	.43	-			
⑤ K-MHC-SF 사회적 웰빙	경찰공무원	.62	.61	.56	.72	-		
	대학생	.53	.54	.42	.60	-		
	청소년	.51	.50	.43	.61	-		
⑥ K-MHC-SF 심리적 웰빙	경찰공무원	.61	.59	.56	.67	.79	-	
	대학생	.58	.59	.46	.60	.72	-	
	청소년	.54	.52	.48	.67	.69	-	
⑦ K-PANAS 긍정정서	경찰공무원	.56	.55	.50	.59	.56	.60	-
	대학생	.55	.57	.44	.55	.52	.65	-
⑧ K-PANAS 부정정서	경찰공무원	-.30	-.33	-.24	-.29	-.22	-.31	-.22
	대학생	-.33	-.33	-.26	-.37	-.28	-.27	-.19

주. 모든 상관계수의 p 값은 .001이하임

준의 부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아울러, K-SWLS 척도의 요인 II의 경우, K-MHC-SF 척도의 정서적·사회적·심리적 웰빙 척도($\rho = .40 \sim .58$), K-PANAS의 긍정정서 척도($\rho = .50, .44$)와 큰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K-PANAS 척도의 부정정서 척도($\rho =$

-.24, -.26)와는 중간 수준의 부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K-SWLS 척도의 요인 I과 타당도 척도의 상관계수는 K-SWLS 척도의 요인 II와 타당도 척도의 상관계수보다 대체로 높았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계수의 차이검증(Meng,

Rosenthal, & Rubin, 1992)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정서적 웰빙($Z = 2.41, p < .01$), 심리적 웰빙($Z = 2.61, p < .01$) 및 긍정정서($Z = 2.53, p < .05$)의 타당도 척도와 상관이 있어 요인 I이 요인 II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비록 통계적 유의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모든 집단에 있어서 요인 I과 타당도 척도의 상관계수는 요인 II와 타당도 척도의 상관계수보다 수치상 높은 값을 보였다.

신뢰도 검증

표 7에는 K-SWLS 척도 각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계수(item-total

correlation), 문항 제거시 신뢰도(alpha if item deleted)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에 있어 K-SWLS 척도의 총점 평균은 21.04점($SD=6.08$)이었고 남성 경찰공무원의 K-SWLS 척도 총점($M=20.93, SD=6.18$)은 여성 경찰공무원의 점수($M=21.96, SD=5.08$)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t = -1.20, p = .23$. K-SWLS 척도의 요인 I ‘현재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12.91점($SD=3.66$)이었고 남성 경찰공무원의 요인 I 점수($M=12.84, SD=3.72$)는 여성 경찰공무원의 점수($M=13.51, SD=3.03$)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t = -1.29, p = .19$. 아울러, K-SWLS 척도의 요인 II ‘과거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8.12점($SD=2.76$)이었고 남성 경찰공무

표 7. K-SWLS 척도의 문항 분석 결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신뢰도
1	경찰공무원	4.17	1.38	.75	.89
	대학생	3.72	1.29	.65	.80
	청소년	3.60	1.44	.66	.83
2	경찰공무원	4.21	1.33	.80	.88
	대학생	4.20	1.37	.56	.83
	청소년	4.06	1.46	.63	.84
3	경찰공무원	4.52	1.34	.81	.88
	대학생	4.49	1.38	.75	.77
	청소년	4.27	1.52	.74	.82
4	경찰공무원	4.33	1.35	.81	.88
	대학생	3.91	1.32	.63	.81
	청소년	3.77	1.42	.74	.82
5	경찰공무원	3.78	1.62	.73	.90
	대학생	3.23	1.72	.64	.81
	청소년	3.20	1.84	.65	.84

원의 요인 II 점수($M=8.08$, $SD=2.81$)는 여성 경찰공무원의 점수($M=8.44$, $SD=2.27$)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 -.92$, $p = .35$.

대학생 집단의 경우, K-SWLS 척도의 총점 평균은 19.59점($SD=5.59$)이었고 남자 대학생의 K-SWLS 척도 총점($M=19.65$, $SD=5.86$)은 여자 대학생의 점수($M=19.53$, $SD=5.3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t = .22$, $p = .82$. K-SWLS 척도의 요인 I '현재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12.42점($SD=3.38$)이었고 남자 대학생 요인 I 점수($M=12.48$, $SD=3.55$)는 여자 대학생의 점수($M=12.38$, $SD=3.24$)와 차이가 없었다, $t = .31$, $p = .75$. 아울러, K-SWLS 척도의 요인 II '과거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7.16점($SD=2.79$)이었고 남자 대학생의 요인 II 점수($M=7.16$, $SD=2.79$)는 여자 대학생의 점수($M=7.14$, $SD=2.57$)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 = .07$, $p = .94$.

청소년 집단의 경우, K-SWLS 척도의 총점 평균은 18.92점($SD=5.99$)이었고 남자 청소년의 K-SWLS 척도 총점($M=19.62$, $SD=6.39$)은 여자 청소년의 점수($M=18.20$, $SD=5.96$)를 상회하였다, $t = 2.41$, $p < .05$. K-SWLS 척도의 요인 I의 평균은 11.94점($SD=3.74$)이었고 남자 청소년 요인 I 점수($M=12.28$, $SD=3.82$)는 여자 청소년의 점수($M=11.59$, $SD=3.6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t = 1.91$, $p = .05$. 아울러, K-SWLS 척도의 요인 II의 평균은 6.97점($SD=2.93$)이었고 남자 청소년의 요인 II 점수($M=7.34$, $SD=3.05$)와 여자 청소년의 점수($M=6.59$, $SD=2.75$)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t = 2.66$, $p < .01$. 종합하면, 남녀 청소년 사이의 K-SWLS 척도의 총점과 요인 II의 점수에서의 차이를 제외하

고 K-SWLS 척도의 총점과 각 요인점수의 남녀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K-SWLS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1(경찰공무원), .84(대학생), .86(청소년)의 값을 보여주었고, 요인 I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88(경찰공무원), .78(대학생), .79(청소년)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요인 II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82(경찰공무원), .67(대학생), .74(청소년)의 값을 보여주어 대체로 기준을 만족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K-SWLS의 문항·총점 상관계수 또한 .30 이상을 보여주어 준거에 부합하였다(.63~.81) (Nunnally & Bernstein, 1994).

표 8은 본 연구에 포함된 3집단(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사이에 삶의 만족도의 값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는 집단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K-SWLS의 두 요인(현재 삶의 만족도, 과거 삶의 만족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 점수는 남녀별 차이를 보인 경우가 빈번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 세 집단의 경우 성별 비율이 균등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8에 제시된 ANOV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6개 변인 중에서 K-SWLS의 요인 I(남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K-SWLS 총점에 있어서 대체로 경찰 공무원 집단이 대학생·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경찰공무원 집단이 청소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여주었고, 여자의 경우, 경찰공무원 집단은 대학생·청소년 집단에 비해, 대학생 집단은 청소년 집단에

표 8. 경찰공무원, 대학생 및 청소년 간 삶의 만족도의 차이

		경찰공무원(A)	대학생(B)	청소년(C)	F	사후검증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K-SWLS	남	20.93(6.18)	19.65(5.86)	19.62(6.39)	4.78**	A>C
	여	21.96(5.08)	19.53(5.36)	18.20(5.96)	10.65***	A>B>C
K-SWLS	남	12.84(3.72)	12.48(3.55)	12.28(3.82)	1.89	
요인 I	여	13.51(3.03)	12.38(3.24)	11.59(3.62)	7.92***	A>C
K-SWLS	남	8.08(2.81)	7.16(2.79)	7.34(3.05)	9.14***	A>B,C
요인 II	여	8.48(2.27)	7.14(2.57)	6.59(2.75)	11.24***	A>B,C

** $p < .01$ *** $p < .001$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K-SWLS 총점 값을 보였다. K-SWLS 요인 II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K-SWLS 총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남자의 경우, 경찰공무원 집단이 청소년·대학생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여 주었고, 여자의 경우, 경찰공무원 집단이 대학생·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K-SWLS 요인 I의 경우, 여자 경찰공무원과 여자 청소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K-SWLS 총점과 K-SWLS 요인 I의 경우에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뚜렷했으나 K-SWLS 요인 II의 경우 세 집단 간 차이는 미미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SWLS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상정한 두 모형 모두 만족스러운 적합도

를 나타내었다. 두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에서 2요인 구조와 단일요인 구조 사이의 적합도 차이는 관찰되지 못했지만, 2요인 구조가 1요인 구조에 비해 한국 경찰관의 삶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데는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 K-SWLS 척도의 요인구조는 2요인 구조가 1요인 구조에 비해 보다 더 강력(robust)한 것으로 여겨진다. K-SWLS 척도가 K-PANAS 척도의 긍정정서 요인, K-MHC-SF 척도의 정서적·심리적·사회적 웰빙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K-PANAS 척도의 부정정서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양호한 수렴 타당도를 시사하였다. 아울러 내적 일치도를 비롯한 신뢰도 지표는 K-SWLS 척도가 비교적 동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집단에서 문항 4와 문항 5가 개별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하고 문항 3, 문항 2 및 문항 1이 별개의 요인으로 묶인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참가자들이 문항 1-3과

문항 4-5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여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문항 1-3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고 문항 4-5가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뜻하기 때문일 수 있다(Hultell & Gustavsson, 2008). 본 연구에서 요인 I과 타당도 척도의 상관관계가 요인 II와 타당도 척도의 상관관계보다 일반적으로 크며, 요인 I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적었지만 요인 II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 또한 2요인 구조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들은 SWLS 척도가 2요인 구조를 지니는 이유를 참가자의 연령에서 찾았고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 더해서 응답자의 연령이 문항 4와 문항 5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Clench-Aas et al., 2011; Hultell & Gustavsson, 2008). 즉, 젊은 대학생에게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되기 쉽지 않으나 중년의 직장인에게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엄연히 구분되어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현재 삶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거나 반대로 과거 삶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지만 현재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 중년의 직장인은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할 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2요인 구조가 단일요인 구조에 비해 한국 경찰관의 삶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데는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잘 반영하는 결과이다.

K-SWLS 척도가 연령변인의 영향으로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지고, 요인 I에 비해 요인 II의 경우 연령 편향(bias)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K-SWLS 척도의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WLS 척도의 총점은 집단별로 달리 나타나서 남자 경찰공무원의 값은 남자 청소년의 값보다 높았다. 아울러 요인 II(K-SWLS 척도)의 값에서도 남자 경찰공무원과 남자 청소년의 수치는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요인 I(K-SWLS 척도)의 값에서는 남자 경찰공무원과 남자 청소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K-SWLS 척도의 총점에서 남자 경찰공무원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요인 I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인 II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요인 II를 제외하고 요인 I만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면 남자 경찰공무원과 남자 청소년 사이의 차이는 사라질 것이다. 즉, 남자 경찰공무원과 남자 청소년 사이에 실제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요인 II의 문항으로 인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기의 문제점은 K-SWLS 척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만약 어느 두 사람이 요인 I의 값에서는 동일한 값을 지니고 요인 II의 값에서 차이를 보일 경우 그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있어 더 높은 값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 연령이 보다 많아서 사회적 성취를 보다 많이 거둔 경찰공무원이 연령이 보다 적어서 사회적 성취를 보다 적게 거둔 청소년보다 요인 II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요인 I에서는 유사한 점수를 나타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결론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요인 II의 두 문항을 제거하거나 연령의 영향을 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대안 문항으로 교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8).

본 연구는 약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의 계급별 경찰공무원 비율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경찰백서(2011)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순경(33%)이며 경장(29%), 경사(20%), 경위(11%)가 그 뒤를 잇는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살펴볼 때 순경(34%) 계급의 비율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비율과 유사하나, 경장(18%) 계급의 비율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고, 경사(26%) 계급의 비율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그것보다 현저히 높다. 선행 연구(강찬조, 201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장 계급의 행복 수준이 경사 계급의 행복 수준에 비해 낮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 계급이 보다 많이 참여한데 비해서 행복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경장 계급은 보다 적게 참가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삶의 만족도 지수의 값은 일반 경찰공무원의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의 참가자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기 지역의 참가자로 제한되었고 경북 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만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주거 여건, 교육 여건 등에서 경기 지역의 경찰공무원과 여타 지역의 경찰공무원, 경북 지역의 청소년·대학생과 여타 지역의 청소년·대학생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주거 여건, 교육 여건 등의 인구사회학적·환경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기 지역의 경찰공무원과 여타 지역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전남 지역과 서울 지역의 경찰공무원은 각각 398명과 410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 지역과 대전 지역은 637명과 640명의 인구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경찰백서, 2011). 1인당 담당 인구에서 경기 지역 경찰공무원과 여타 지역 경찰공무원이 보이는 차이가 두 지역 경찰공무원 사이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경찰공무원·청소년·대학생에게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상기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청소년·대학생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과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WLS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척도의 심리 측정적 속성은 개별적 대상과 구체적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척도를 적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더불어 확인할 수 있었다. K-SWLS 척도를 보다 다양한 집단에 적용하여 그 속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해 본다면 K-SWLS 척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찬조 (2012).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웰빙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경찰백서 (2011). 2011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21-47.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261-278.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Anaby, D., Jarus, T., & Zumbo, B. D. (2010).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ebrew language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 267-274.
- Arrindell, W. A., Heesink, J., & Feij, J. A. (1999).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Appraisal with 1700 healthy young adults in The Netherlan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815-826.
- Arrindell, W. A., Meeuwesen, L., & Huyse, F. J. (1991).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non-psychiatric medical outpatients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7-123.
- Atienza, F. L., Pons, D., Balaguer, I., & García-Merita, M. (2000). Propiedades psicométricas de la Escala de Satisfacción con la Vida en adolescentes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n adolescents]. *Psicothema*, 12, 314-319.
- Atienza, F. L., Balaguer, I., & Garcia-Merita, M. L. (2003).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alysis of factorial invariance across sex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255-1260.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lais, M. R., Vallerand, R. J., Pelletier, L. G., & Briere, N. M. (1989). L'Echelle de satisfaction de vie: Validation Canadienne-Francaise du "Satisfaction with Life Scale"(French-Canadian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 210-223.
- Bonnet, D. G. & Wright, T. A. (2000). Sample size requirements for estimating Pearson, Kendall, and Spearman correlations. *Psychometrika*, 65, 23-28.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New Jersey.
- Clench-Aas, J., Nes, R. B., Dalgard, O. S., & Aarø, L. E. (2011). Dimensionality and measurement invariance 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n Norwa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815-82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rak, M., Senol-Durak, E., & Gencoz, T. (201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mong Turkish university

- students, Correctional officers, and elderly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 413-429.
- Gilman, R., & Huebner, E. S. (2001). Review of life satisfaction measures for adolescents. *Behaviour Change*, 17, 178-195.
- Gouveia, V. V., Milfont, T. L., Fonseca, P. N., & Coelho, J. A. (2009). Life Satisfaction in Brazil: Test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in five Brazilian sampl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0, 267-277.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 149-158.
- Hultell, D., & Gustavsson, J. P. (2008).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n a Swedish nationwide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070-1079.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207-222.
- Keyes, C. L. M. (2003). Complete mental health: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293-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Keyes, C. L. M., Wissing, M., Potgieter, J., Temane, M., Kruger, A., & van Rooy, S.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 in Swetsana-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5, 181-192.
- Layard, R. (2006).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 Lewis, C. A., Shevlin, M. E., Smekal, V., & Dorahy, M. J. (1999).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of a Czech transl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mong Czech university students. *Studia Psychologica*, 41, 239-244.
- Lim, Y-J., Go, Y-G., Shin, H-C., & Cho, Y-R. (in press).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Complete Mental Health in the South Korean Adult Population. In C. Keyes (Eds.), *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Springer.
- Lim, Y-J., Kim, D-K., Yu, B-H., & Kim, J-H. (2010).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Psychiatry Investigation*. 7(3), 163-169.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arsaglia, G., Tsang, W. W., & Wang, J. (2003) Evaluating Kolmogorov's Distribution,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 1-4.
- Martinez, J. C., Martinez, M. R., Garcia, J. C., Cortes, I. O., Ferrer, A. R., & Herrero, B. T. (2004). Fiabilidad y validez de la Escala de Satisfacción con la Vida de Diener en una muestra de mujeres embarazadas y puerpera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of Diener in pregnant and puerperium women]. *Psicothema*, 16, 448-455.

- Meng, X., Rosenthal, R., Rubin, D. B., (1992). Comparing correlated correlation coeffici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1, 172-175.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2). *Mplus 2.02* [Computer software]. Los Angeles: Muthén and Muthén.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7). *Mplus user's guide (5th ed.)*. Los Angeles: Muthén and Muthén.
- Neto, F. (1993).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in an adolescent sam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 125-134.
- Neto, F. (200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in Portuga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53-67.
- Nunnally, J., & Bernstein, I.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Pavot, W., & Diener, E. (2004).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well-being in adulthood: Findings and implications. *Ageing International*, 29, 113-135.
- Pavot, W., & Diener, E. (2008).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he emerging construc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 137-152.
- Pons, D., Atienza, F. L., Balaguer, I., & García-Merita, M. L. (2000).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alysis of factorial invariance for adolescents and elderly pers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1, 62-68.
- Pons, D., Atienza, F. L., Balaguer, I., & García-Merita, M. L. (2002). Propiedades psicometricas de la Escala de Satisfacción con la Vida en personas de tercera edad [Psychometric properties of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n elderly]. *Revista Iberoamericana de Diagnóstico y Evaluación Psicológica*, 13, 71-8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atorra, A., & Bentler, P. M. (1999). *A scaled difference chi-square test statistic for moment structure analysis. (UCLA Statistics Series 260)*.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 Schimmack, U., Oishi, S., Furr, R. M., & Funder, D. C. (2004).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 facet-lev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1062-1075.
- Schimmack, U., Radhakrishnam, P., Oishi, S., Dzokoto, V., & Ahadi, S. (2002). Culture,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grating process model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582-593.
- Shevlin, M. E., & Bunting, B. P. (199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9, 1316-1318.
- Skok, A., Harvey, D., & Reddihough, D. (2006). Perceived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mong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31(1), 53-57.
- Suh, E., Diener, E., & Fujita, F. (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91-1102.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wami, V., & Chamorro-Premuzic, T. (200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Malay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 25-33.
- Tucker, K. L., Ozer, D. J., Lyubomirsky, S., & Boehm, J. K. (2006). Testing for measurement invariance 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comparison of Russians and North America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 341-360.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an Hemert, D. A., van de Vijver, F. J. R., & Poortinga, Y. H. (2002).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as a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257-286.
- Watson, D., Clark, L.,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lkinson, R. B., & Walford, W. A. (1998). The measurement of adolescent psychological health: One or two dimens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443-455.
- Wu, C. H., & Yao, G. (2006). Analysis of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in the Taiw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259-1268.
- 1 차원고집수 : 2012. 3. 2.
수정원고집수 : 2012. 5. 16.
최종게재결정 : 2012. 9. 6.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University Students, and Adolescents

Young-Jin Lim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K-SWLS) in various samples. In order to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WLS three independent and separate samples are included in this study, i.e. police officers ($n = 516$), university students ($n = 421$), and adolescents ($n = 437$). As for the reliability of this instrument, internal consistency an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found to be satisfactory for all samples. Concerning the validity studies, concurrent validity of the measure is approved in all three samples by showing the association of SWLS with conceptually and empirically related constructs, which are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Inconsistent with the earliest version, two-factor model was found to be an optimal fit for all samples.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K-SWLS